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 벽)	19:00(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 09월 21일(화)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성전에 비치한 봉헌함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추석 미사 시간	아침 06:30, 낮 12:00
-------------	-------------------

- 추석 당일 만 미사 후 카페 앞 성체 분배 있습니다.
- 낮 12시 미사 후 음식 나눔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해는 없습니다.

● 알 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서울대교구 내 성지 개발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다음 주(09월 19일) 헌미헌금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9/12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09/19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가톨릭 신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나요?

- 권장하지는 않으나 허용.
- 조상님에 대한 효성의 표시와 가족의 일치, 나눔의 장으로서 미풍양속 존중.
- 미신적 행위 신위, 신주, 위패 지방, 혼령을 불러들이는 축문은 금함. (십자가와 사진 사용장려)
- 우리 가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위령도 함께 기억.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든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09/1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6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9월01일 ~ 09월07일)

교 무 금	9,997,000원
주일헌금	3,236,200원
시설헌금 - 전필만	1,000,000원
사회복지후원금	1,000,000원
감사헌금	김수자10만원 서만심 6만원 박주형10만원 이인자 4만원 김성만10만원 이형순 5만원 김순임10만원 이은용10만원 한갑남30만원 오희영30만원 설광옥 5만원 김OO 5만원 유경민10만원 최은화 5만원 김경자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독 서
09/12	구민서	최웅조 김강자
09/19	최경희	하재민 한희숙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09/12	김인기	박형순	김광수 최창열	박용환
09/19	박승환	오광운	이운영 최석준	김영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75. ‘노상 강도들’은 흔히 ‘반대쪽을 보면서 길을 지나쳐 가는’ 자들과 은밀히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용하고 속여 소진시키려는 자들과, 자신이 순수한 비평가 역할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체제와 자원들에 기생하며 잇속을 차리는 자들이 내통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면책,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제도악용, 근절 불가능한 또 다른 악들이, 모든 것에 대한 끈질긴 악평, 불신과 혼란을 퍼뜨리면서 꾸준히 의혹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들과 결탁하는 곳에 안타까운 위선이 존재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불평에 ‘아무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답이 따릅니다. 이렇게 하여 환멸과 절망이 자라나고, 이것은 연대와 관용의 정신을 복돋지 않습니다. 한 민족을 낙담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완벽한 악습의 고리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고와 의견 피력 능력과 자원을 좌우하는 숨겨진 진짜 이해관계의 보이지 않는 독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76. 끝으로 다친 사람을 바라봅시다. 때때로 우리는 중상을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과 같은 처지라고 느낍니다. 또한 우리는 빈약하고 미비한 제도들, 또는 내외부 모두에서 그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 제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세계화된 사회에는 시선을 돌리는 세련된 방식이 흔히 존재합니다. 정치적으로 옳다거나 이념적으로 유행한다는 구실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과 실제 접촉 없이 바라보기만 합니다.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고통받는 이의 모습이 방영되고, 심지어 그럴듯한 관용어와 완곡어법으로 그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77.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을 얻습니다. 지배층이 모든 것을 해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정과 변화를 계획고 실현하는 공동 책임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회를 되살리고 지원하는 데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대신 다른 이들의 역경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우연히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인 행인처럼, 쓰러진 사람을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꾸준히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민족과 공동체가 되려는 자발적이고 순수하고 단순한 바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폭력을 일삼는 자들과 맹목적 야망을 키우며 불신과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의 사고방식에 굴종해 버리고 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를 권력 게임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증진하고 선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됩시다.